

# 해양 온난화 영향...김, 바다 아닌 육상에서 키운다

### 정부, 내년 연구개발 착수...사업 5년간 350억원 규모 대상·풀무원, 양식 기술 개발 매진...사계절 생산 강점

정부가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을 육상에서 양식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김 육상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개발 사업 규모는 5년간 3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예산안을 심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김 육상 R&D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R&D는 이상기후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으로 김 양식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을 육상에서 양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 온난화와 이상기후의 심화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재해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립수산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해역의 표층 수온은 약 1.3

℃ 상승했다. 지속적인 수온 상승에 따른 양식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김은 성육 시기 수온이 5-15℃로 10월부터 이듬해 4월 정도까지 주로 생산된다. 국립수산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남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1년 중 수온이 5-15℃ 범위인 일수는 현재 연간 150일 내외이지만 200년에는 대부분 해역에서 100일 미만으로 줄어든다. 김은 일평균 수온이 22℃ 이하로 내려가는 채묘(採苗·종자 불이기) 적정 시기가 과거 9월 초였지만 근래에는 9월 말 이후로 늦춰졌다. 채묘 시기가 늦어지면 양식 기간이 단축돼 생산성과 품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김을 육상에서 양식하면 사계절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수부는 육상에 있는 버려진 양식장을 활용해 육상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김 종자를 개발하고 양식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김 업계는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곳에서 김을 양식해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올해 들어 일본과 중국이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려 국내 공급이 감소한 탓에 김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육상에서 김이 잘 자라는 환경을 갖춰 실제로 어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이 목표"

라면서 "앞으로 민간 기업과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도 김 육상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해 애쓰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김 육상 양식 기술 개발 연구를 시작했으며 관련 기술 개발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상 관계자는 "마른김을 상품화하려면 많은 양의 물김을 안정적으로 양식해야 한다"며 "그 정도의 물김 생산 기술과 설비를 갖추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풀무원은 지난 2021년 육상 양식 기술 개발을 시작해 이듬해 전라북도도 김 신 품종 개발, 실내·외 양식 공동연구 및 기

술개발 등을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연구 목적은 바이오 리액터(생물 반응조)로 불리는 큰 수조 안에서 김을 재배하고 수확해 상품화하는 것이다. 풀무원은 이미 육상 양식으로 수확한 물김을 활용한 메뉴를 지난 5월 비건 레스토랑에서 출시해 육상 김 양식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회사는 3년 내 육상 김 양식 기술을 활용해 김을 제품화하는 것이 목표다. 풀무원 관계자는 "보급형 김 육상 양식 모델을 개발해 어민에게 기술을 이전하려고 한다"며 "어민이 생산한 김을 직접 팔거나 풀무원이 이를 제품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당치킨 2주년 기념 신메뉴 출시... 풀플러스가 당당치킨 출시 2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일부터 신메뉴 '당당 허브라이프치킨공보'와 '풀플러스틱 감비왕 오븐치킨'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풀플러스 제공>

## "추억은 LP를 타고"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  
제즈·상송 등 상품 다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9일 "지하 1층 와인 매장 앞 이벤트홀에서 다양한 LP와 턴테이블을 만나볼 수 있는 'LP 팝업스토어' 행사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대에 클래식한 아날로그 감성으로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LP 상품들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디즈니 영화 OST 컬렉션 및 제즈의 아이론 컷 베이커, 파리의 상송 등 한정판 LP를 만나볼 수 있으며 최신 인기 앨범도 준비돼 있다. /정은솔기자

## 오늘은 유타호텔 'U-DAY' 성수기 최대 80% 할인



유타호텔은 9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피서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성수기 저축을 위해 7월에도 U-DAY 초특가 할인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유타호텔 U-DAY 이벤트는 매월 10일째 열리는 프로모션으로 제주 함덕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유타유티레스호텔 제주와 전 객실 오션뷰 테라스를 갖춘 여수 유타마리나호텔&리조트를 최대 8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식음료 매장과 부대시설 최대 20% 할인, 조식 2인 무료,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유선 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투숙 기간은 8월31일까지로 한정된다. 이외에도 유타유티레스호텔 제주는 라운지바 10%, 프라이빗 모던료칸 20% 할인 등의 추가 혜택을 선보인다. 여수 유타마리나호텔&리조트는 또한 프리드링크 2잔 무료, 주간 요트투어 1인 무료 등을 제공한다.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난 6월10일 U-DAY 초특가 할인전을 통한 예약은 전달 대비 25배나 늘었다. 최정원 유타호텔 본부장은 "U-DAY 초특가 할인 전 외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 무더운 여름 유타호텔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 농어촌공, 행안부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재해예방·재난대응 성과 인정...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2곳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 실태와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다. 공사는 올해 평가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센터 설치 ▲실제 재난 상황 대비 훈련 ▲안전보건경영 방침 수립 ▲재난 관리자 맞춤형 교육 ▲유관기관과 협업 ▲전담 인력 추가 확보 등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 감소'와 '안

전관리 조직강화'를 공사의 주요 경영방향으로 설정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전담 인력을 확보하며 재난 예방,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크게 인정받았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는 재난관리를 최우선으로, 안전 확립을 위한 공사의 노력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빈틈없는 재난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1.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3.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쳐겠습니다.

###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무안군  
문의 : 062)650-2099